

어린이 책꽂이

▲로스-제5권 고래 뱃속으로 사라지다=과학과 상상이 만나는 과학동화 시리즈로 판타지 영화를 보듯 박진감이 넘친다. 대왕 오징어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바다 속 탐험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봄나무·8천원)

▲어린이를 위한 수학의 역사 1=초등 산수에서 수학으로 넘어갈 때 어린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진법과 비례식, 기하학의 원리, 피타고라스 정리 등이 쉽게 설명돼 있다.

마치 친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할아버지의 수학+미니강좌'코너가 실려 있다.

(살림어린이·9천원)

▲책벌레 선생님의 아주 특별한 도서관(전2권)=독서교육 전문가인 저자 임성미씨가 40여권의 책을 엄선해 책의 내용, 주제, 의미 등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가 꼭 읽어야 할 '왕자와 거지', '토끼전', '팽이 부리말 아이들', '유일한 이야기',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등이 수록돼 있다.

(글담어린이·각권 1만1천원)

▲우리 아빠는 우당탕탕 발명가=로봇 발명이 취미인 주인공 아빠의 좌충우돌 성공담, 로봇을 만드는 아빠의 기발한 상상력과 유쾌한 유머가 웃음을 준다.

(어린이 작가정신·8천원)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전2권)=부라부라는 '불이야 불이야'가 줄여서 된 말이고, 어째동무는 어째를 나란히 겹고 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

초등학교 과정과 일상 생활속에서 자주 쓰이는 우리말과 외래어, 한자어의 유래를 다뤘다.

(글벗스쿨·각권 9천800원)

조선시대 가훈·유언에 나타난 자녀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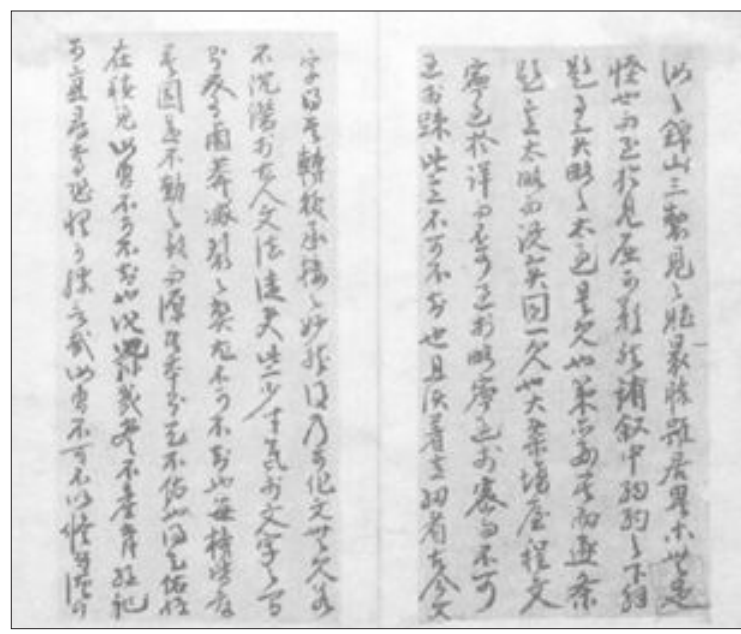
호걸이 되는 것은... 정민·이홍식 지음

우리나라의 '가리키 아빠' '원정출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자녀 교육에 열성적이지만 정작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를 찾아보는 일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돈만 벌어나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조선시대의 아버지들은 요즘 세대의 아버지들보다 자녀교육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생각보다 더 세심하게 자녀 교육을 행했다.

이홍식 연구교수가 조선시대 명문가의 가훈과 유언을 엮어 '호걸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를 펴냈다. 각종 문집 등을 뒤져 조선시대 명문가의 가훈과 유언 31편을 우리말로 옮기고 여기에 해설을 덧붙였다.

명암정 송순(宋純·1493~1583)은 거듭된 천재지변으로 민심이 흉흉할 때 벼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가진 자식들을 나무라며 "이는 머리속에 살다 보니 빛이 검어지고, 사향노루는 자를 따먹는 동안 배꼽에 잣 향내가 스미는 것처럼 사람도 가까이하는 사람에게 물이 드니 부디 유익한 벼를 사귀라"고 충고했다.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녹우당에 보관돼 있는 고산 윤선도의 친필 가훈첩(보물 제482호)의 첫 부분.



이홍식 연구교수가 엮은 '호걸이 되는 것은...'의 표지.

에게 가르침이 될 만한 인물들과 그들의 언행을 기록한 '훈제자첩(訓誥子帖)'을 엮어 꼼꼼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면모를 보였다.

고산 윤선도(尹善道·1587~1671)가 70을 넘긴 나이에 함경도 귀양지에서 큰아들 인미에게 보낸 편지글 내용은 잔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해마다 시험에 낙방하는 아들에게 과거시험을 보는 요령을 알려주고, 생활 습관,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세세하게 지적했다.

성호 이익(李瀾·1681~1763)은 목민관으로 부임하는 아들에게 일을 맡으면 손해를 따지지 말고 성실할 것, 백성을 따뜻하게 품어 안을 것, 아랫사람이 잘못하더라도 과도하게 성내지 말고 타일러 바로잡아 줄 것 등 여덟 가지의 가르침을 적어주며 늘 마음에 새겨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근재 박윤원(朴胤源·1734~1799)은 시집가는 딸에게 "내가 어떤 지어미가 되느냐에 따라 본가의 영욕이 나뉘며, 네 행실이 두 집안의 성패가 달렸으니 어찌 몸가짐 마음가짐을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14조의 훈계를 내리기도 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대 선비들은 자기 학문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극성이나 실을 만큼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세심하고 엄격한 자녀 교육 덕분에 이들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명문가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비록 사소한 덕목일지라도 나름대로 가정의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자녀 교육에 적극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이 책은 그래서 자녀교육에 관한 한 '방관자'에 머물고 있는 이 시대 아버지들의 필독서로 권할만 하다. <김영사·1만3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

스무 살 무렵 나는 철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었다. 짧은 날 다 그렇듯이 인생을 뛰어나 고뇌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뚜렷한 이유 없이 삶에 대해 비관적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철학자 니체(Nietzsche)를 공부하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대학 학부 때 '철학독일어' 과목 교재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였다.

이 책은 내 전공을 결정해 주었고, 내가 평생을 니체 연구자로 살게 했다. 보다 중요한 의의는 이 책을 통해 내 인생관이 성숙해진 사실이다. 나는 지금도 이 책속의 많은 구절이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니체는 전통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거부한다. 이유는 지금, 여기에 실존하는 인간을 평가절하 하는 가치관을 혐오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늘 저 너머로 동경의 화상을 겨냥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럴수록 삶의 지반인 대지와 현재가 쇠잔해지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미래의 천국을 동경하는 이유로 오늘을 희생하는 삶의 자세를 묵과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반 기독교적임에 틀림없다.

삶에 대한 금지와 용기 주문



프리드리히 니체·영역·영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까지 선언한다. 그것도 인간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한다. 이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들은 죽음의 설교자요, 신체의 경멸자라고 공박한다.

신이 죽었다고 해서 인간이 해방을 얻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 책임 하에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의 목표와 의미를 인간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 인간이 자기 인생의 설계자가 되고, 도덕적 주체로 살아야 한다는 니체의 철학이 짧은 날의 내 마음을 다잡았다.

또 니체는 운명론을 갈파한다. 더러운 감동과 같은 이 삶을 기피하지 말고 극복하라는 요구다. "오, 인생은 더러운 감동이란가. 좋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외쳐보라고 한다. 진정한 바다는 더러운 감동이 흘러들어도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비극적 현실에 무릎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으려는 뜻이다. 세계와 역사에 피할 수 없이 부활하는 허무를 꺼안는 능력을 갖추라는 말이다.

나는 내 자신의 삶의 허무를 주체 못해 부대끼 시간들을 이 세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내가 전라도 한 구석에서 태어났고, 4·19와 5·18의 시대를 살았고, 총명하지 못한, 그리고 소심한 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니체는 이런 삶을 성실한 삶으로 간주한다. "나의 성실이 멈추는 곳, 거기에서 나는 행복적이 된다"는 말로 성실과 진지함의 상실을 경고한다. 이런 경고를 받아들여 나는 운명적 내 삶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의지를 길렀다.

니체는 우리에게 목수리의 용기를 주문한다. 두려움을 알면서도 그 두려움을 제어하는 자, 목수리의 눈과 발톱으로 심연을 조을 허무를 버려내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한 자다.

짧은 날로부터 지금까지도 나로 하여금 삶에 대한 금지와 용기를 갖게 한 책이 바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다.

성진기(전남대 명예교수)



기독교 국가 변신 등 고대 로마 역사 해부

로마의 역사 사이먼 베이커 지음

한 때 세계를 지배했던 초강대국 '로마'의 역사는 '로마인 이야기' 등 다양한 저작물로 세상에 나왔다.

옥스퍼드대 출신으로 영국 BBC 제작 역사기획팀에서 많은 기획을 담당한 사이먼 베이커가 쓴 '처음 읽는 로마의 역사'는 방대한 로마의 역사를 500페이지 분량의 한권에 담아낸 책이다.

BBC가 방영한 다큐 '고대 로마'의 개발 프로듀서로 참여한 저자가 다큐 방영에 맞춰 펴낸 이 책은 세카이, 카이사르 등 당대의 인물이 남긴 자료와 유물과 유적 등을 토대로 수천년간 로마의 모습을 생생히 재현했다. 특히 이교도 국가이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신하는 등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졌던 기원 전 2세기에서 기원 후 5세기 사이 로마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생생히 묘사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천원)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마오쩌둥의 다양한 모습과 실체 재조명

마오쩌둥 로스 데릴 지음

중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추앙받는 마오쩌둥. 그는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데 꼭 거쳐야 하는 인물로 꼽힌다.

'마오쩌둥'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광범한 소년 마오쩌둥이 중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과정을 연대기 순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지금의 중국이 있게 된 역사적 배경도 함께 다뤘다.

마오쩌둥 평전의 '완결판'으로 불리는 책은 중국 통일의 완성자, 아시아 공산주의 이론가, 공산주의 진영 와해자 등 마오쩌둥의 다각적인 모습과 실체를 조명했다.

중국전문가인 미국학자 로스 데릴이 20여 년간 철저한 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해 20세기 중국과 세계의 역사를 함께 한 마오쩌둥의 생애를 꼼꼼하게 들여다 봤다.

(이통·3만7천900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목욕탕 임대 급히 구함. 시외 농장부지 급히 구함. 상가 건물 매매. 수익성 좋은 원룸.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3114-6103. 6억 시골 매매. 7억 5천 교외권 매매. 병천부지 전문중개.

생계형, 음식, 호프, 피자구이 전문 컨설팅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062-374-2860, 010-9115-4467. 기획·메뉴개발·매각상담·경영컨설팅·인테리어.

대승공인중개사 062)954-7700, 010-9468-7959. 토지구획, 수원지구 전문부동산, 건축상담. 토지매매, 분양권, 상가매매, 임대분양.